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취업 성공사례집

지역청년들의 취업성공 체험수기
| 2017년 7월호 |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지역청년들의 취업성공 체험수기 청년취업 성공사례집 _ 7월호

■ Different is The only one (색다름은 유일함 : 색다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02
_ 조나래	
■ 중요한건 마음가짐 힘들어도 정석대로 간다!	04
_ 이성훈	
■ 벽을 넘으면 길이 된다	06
_ 오수진	
■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하는 선택	08
_ 이가현	
■ 어디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자!	10
우리지역 및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하는 길은 인적자원으로부터	
_ 전국회	
■ 먼 길을 돌아온 젊은 날의 방향을 마치며	12
_ 신혜라	
■ 나에게 찾아온 기회와 노력을 통해 보람을 찾다	14
_ 이OO	
■ 눈높이를 낮추자! 지역 중소기업에도 보람은 있다!	16
_ 박광표	
■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17
_ 이호철	
■ 다시 시작하는 마음, End가 아닌 And로	18
_ 이진영	

Different is The only one (색다름은 유일함 : 색다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창 업 자	조나래 (여, 30세,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창 업 기 업	영암새댁
창 업 내 용	무화과 생산 및 판매

간호학과 졸업 후 소아과, 중환자실, 신경외과병동, 수술실에서 간호사생활을 했다. 병동에서는 어린나이에 책임간호사까지 올라갔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을 비롯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6년간의 병원생활로 인해 나의정신과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직장에서의 보람은 찾을 수 있었지만, 집안에서의 아내와 엄마의 역할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직장에서는 대박은 집안에서는 쪽박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눈물을 흘리며 출근했던 직장에서, 수술실로 업무변경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공든 탑을 무너트리기에 충분했고, 열과 성의를 다해 근무했던 직장에 대한 회의감은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창업 초기에는 1차생산과 유통 및 마케팅만의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던 신랑이 다니던 농협을 그만두고 1차 생산을 담당했고, 나는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기에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농사 특성상 각 작물마다 수확시기 및 재배법의 차이도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의 방법과 마케팅은 숫자만 나열해도 책 한권은 나올 분량이다.

현재 귀농 2년차 농사를 마감한 상태에서 생산량 및 판매루트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식품제조가공공장도 짓고 있다.

창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회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짜인 루트대로 뒷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창업은 혼자서 루트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 후 1년간은 정말 신랑과 피터지게 싸웠다. 지금도 물론 일 적인 부분에서의 충돌은 있지만, 각자의 힘겨움을 알기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이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오죽하면 그냥 남하고 일하는 것이 낫다고 할까?!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군이 되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적군으로 돌아서면 그 약점은 위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나의 성공이 나만의 성공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종 목표점을 어느 곳으로 잡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나지만, 우리의 성공은 가족들의 내조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고, 타인의 시선에서 볼 때의 우리의 현 상황이 성공이라고 보겠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 부자는 숲을 보고 나무를 심는다. ”

쉽게 말해, 성공의 기준이 단지 돈으로만 판단했을 경우, 연 매출 1억으로 잡느냐, 100억으로 잡느냐의 따른 그릇크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장의 앞만을 보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 처음 초기부터 길게 15년 정도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차차 1년, 2년 상세 디테일 샷을 구상했다. ‘ 숲을 보고 나무를 그려라.’ 그리고 그 각각의 그림을 얼마나 상세하게 그려 놓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겁낼 줄 알고, 남들이 겁낼 때는 욕심을 낼 줄 알아야 한다. - 워렌버핏 ”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력할만한 각오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의 양으로만 치면 직장생활 때보다 머리가 더 아프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삶의 질은 훨씬 나아졌다. 직장은 금수저 제외, 직원이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내 사업은 나의 노력여하에 따라 스케일이 달라진다. 남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귀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건 마음가짐 힘들어도 정석대로 간다!

취업자	이성훈(남, 30세,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과)
취업기관	여수엑스포수산
업무내용	수산물 통신판매 (홍합, 굴, 바지락)

“모든 일에 쉬운 것은 없다. 힘들지만 정석(定石)대로 나만의 노하우를 키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제가 부모님의 사업을 도와 취업을 할 때 다짐했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수산업은 제가 전공한 분야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기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 사업을 제가 할 수 있게 부모님께서 믿어주셔서 더욱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였고, 판매하는 홍합, 굴, 바지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머리보단 발로 먼저 뛰어다녔습니다.

바다사정에 따라 생물 상태들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최대한 신경 써서 손질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려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전남의 수산업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고 저의 성공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수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작업도 낯설고 납품한 수산물의 반품과 고객들의 항의전화로 힘들었지만, 모든 걸 내가 부족하단 생각을 갖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 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믿고 찾아주는 소비자들께서 큰 힘을 얻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산물을 통신판매 위주로 홍합, 굴, 바지락 등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홍합은 1년 내내 판매하고 굴은 겨울철에 판매하며 바지락은 직접 다이버와 제가 바다에 직접 들어가 채취하기에 판매하는 생물의 상태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현재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으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크고 작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고 여유도 생겼지만 제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웃을 수 있었기에 현재 저는 만족스럽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표를 선택했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목표에 관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며, 잘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을 하든 실패가 따르는 법이고, 실패가 따르면 또 성공이 다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 또한 경험이고 경험 또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목표는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기업 취업만 고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선부른 결정과 판단보다는 깊은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위의 취업선배나 창업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전 정신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마주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더 기운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을 넘으면 길이 된다

취업자	오수진(33세, 여)
취업기업	(주)금양이앤씨(BASALT,제관철구조물제작)
업무내용	총무, 입찰담당

제 평소 좌우명은 ‘잊지 마라, 벽을 넘으면 길이 된다.’입니다. 긴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해왔던지라, 취업준비가 부족하고 업무경험도 적었지만 제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현재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싶은 시점에 여러 회사를 알아보던 중 지금의 회사를 취업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는 등 여러 정보를 보니 소기업이지만 내실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되어 입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총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기업인지라 여러 업무를 익혀야 하는 단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 모든 직원이 훌륭한 팀워크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이 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내놓는 것을 격려하십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탕비실 공사를 진행하였고, 여러 복지 방안을 고안하십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 준 직원을 위해 짧지만 해외 워크숍을 보내주는 소기업은 드물 것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원이지만 전문성을 더 길러 자신과 회사 양쪽에 업무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적은 연봉, 복지 등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고, 회사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 내지위를 올려간다면 그에 성취도는 따라올 것입니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근무환경 개선 등 원하는 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인재가 됩시다!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하는 선택

취업자	이가현(여, 20세, 삼계고등학교)
취업기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국제공항지소
업무내용	해외 감염병 관리

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국제공항지소에서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막아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삼계고등학교 졸업생 이가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과 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증가, 취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과 목표가 설정된 특성화고로의 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기에 저는 중학교에서 반에서는 1등 전교에서도 상위 5%에 들만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조리 과학 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보건고등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항상 부모님이 챙겨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또한 모두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삶의 전환점을 제시해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꿈이 많던 중학생이었던 저는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해보고자 유학도 가고 싶었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의 문제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인즉 제 뒤로는 2명의 동생들이 있었기에 부모님께 비용의 문제를 안겨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해 줄 수 없어 오히려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철없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고, 제 삶을 꼭 부모님께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꼭 최종목표가 대학 진학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어린나이에 자신의 특기를 살려 취업을 준비하고자 진학한 특성화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체육과 영어로 꼽았던 저는 지식과 체력을 겸비하여 국가를 지키는 부사관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품고 삼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늘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저였기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로 진학을 선택한 순간 대부분의 주변사람들은 저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절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옳다는 것에 반대표를 드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게 맞는 길인 걸까라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로선생님과의 면담,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특성화고로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라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고민을 했지만,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취업에 성공하여 특성화고로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부사관과 특성화고인 삼계고등학교는 저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사관이 되기 위해 필수과목인 한국사공부를 하면서 단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보다는 국민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를 배운다는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는 늘 즐거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증 취득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취업의 문을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체력단련이 필수인 부사관 학교이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운동한 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이든 체력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단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힘든 운동을 하면서 더욱더 주변사람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인종,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가 요구되는 공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교육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내가 원하는 분야의 대학에 지원하여 일정 학점을 획득하면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엄청난 혜택에 저도 내년엔 대학교 입학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하는 친구들보다 일찍 취업함으로써 대학교육도 무료로 제공받으며 저의 일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유학,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결과가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보다는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특기, 적성을 살려 고교진학을 선택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하여 모두가 100%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이외의 나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시간, 모르는 문제를 몇 시간 공공대며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여쭙 보아 답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뻐던 시간, 늦은 밤까지 공부하며 시험합격을 준비했던 시간, 시험 합격 전까지는 그저 힘들고 빨리 스쳐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그 시간들이 나에게 가장 값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거나 힘든 순간들이 오면 어서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모여 결국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삼계고에 진학하여 배웠습니다.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어디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자 우리지역 및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하는 길은 인적자원으로부터

취 업 자	전국희(37세, 여)
취 업 기 업	연진건설조경(주)(조경식재 및 종합문화재수리업)
업 무 내 용	공무 및 경리업무

기회를 만드는 노력과 열정

고등학교 재학 중 취업하게 된 삼성전기에서 10여년 이상 근무 후 퇴사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갖은 이후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회사에서 영광군 청년 인턴사업을 지원받아 채용하고 1개월 인턴기간을 지내고 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근무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분야여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진건설조경이란

영광읍에 위치한 회사로 조경식재업 및 종합문화재수리업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조경식재업을 통해 수목이나 초화류등에 대해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며 생태계 보존 및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단청 및 보존과학업을 통해 문화재 복원 및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조경식재업만 시행하다가 2016년에는 종합문화재수리업 면허 추가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성장과 더불어 지역사업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생 한만큼 보람찬 업무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공무 및 경리업무이며, 처음해보는 업무라 초반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가려고 노력했으며,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업무에 대한 재미와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업무 처리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관련 직종에 대한 또 다른 배움의 영역도 넓혀 나아가야겠다는 배움의 의지도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분야의 업무를 두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업무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각자 맡은 업무만 진행하고 본인의 성장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적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때문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금이나 복지 등은 대기업에 비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중소기업도 직원복지혜택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고향에서 지내다보니 부모님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돌아온 젊은 날의 방향을 마치며..

취 업 자	신혜라(32세, 여, 진도고)
취 업 기 업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업 무 내 용	노인 일자리 전담반

오늘 아침도 바쁘게 서두르며 출근 준비를 한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생활에서 좌절에 빠져 마음과 몸이 가누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운 날들로 충만한 날들이다. 집 앞 시원한 초여름의 아침 바람을 끼고 푸른 바다를 담은 넘실대는 파란 바다를 낀 해안 도로를 달리며 1년 전의 날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최남단 진도 해안가의 농어촌 집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조상 대대로 이곳만을 지켜 온 농어촌 생활을 해온 아버지와 어머니. 어렵지만 남들 생각하기에는 다복하다고나 할까. 근면 성실한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곳에 소재한 초·중·고를 졸업하고 개인 사정으로 대학은 포기하고 일찍이 서울에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였다. 그 때까지 살아온 생활과 전혀 다른 서울은 나에게서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복잡하고 탁하기만 한 대기, 사소한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친 일상생활 모든 게 생소하고 새롭기만 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방향을 반복하다 부모님들의 권고에 다시 귀향하였다. 시골이 싫어 떠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 날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곳으로 결국 돌아왔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가장 젊다는 연령층이 40대 초반인 시골의 연령 분포 때문에 젊은 나이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을 의식하며 집 밖 출입을 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 세월을 파먹는 좀벌레 마냥 시간만 축내고 마음도 몸도 쇠약해지기만 하던 차에 새일 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정보를 얻고 상담 후 적당한 일자리를 찾던 중 “대한 노인회 진도군 지회”에 취업하게 되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을 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내 가족이다 생각하며 평소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살려 노인문제와 건강 및 생활 안정에 대한 세세한 일들까지 챙기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농·어촌은 이촌 현상으로 젊은이가 적고 나이가 많은 분들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들 자체를 해결하고자 조직된 노인회는 처음에 나에게서는 세대가 다른 조직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손자처럼 때로는 딸처럼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내용에 연연하지 않고 현장을 돌

며(뛰며)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먼저 내가 아닌 상대를 배려하고자 노력하였고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다. 오히려 도시에서 맛보지 못했던 정겨움을 맛보면서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들이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건강 역시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성인병 등으로 많이 시달리지만 옆에서 돌봐 주는 사람이 없어 당장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며 정서적 고독과 외로움 등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불안 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사회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사회단체나 일반 가정 단위로 서로 연계하여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적당한 소일거리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사회를 정의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도시에 비하여 시골 특히 이곳 농·어촌의 생활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다고 본다. 다양한 문화 혜택은 부족하다고 하나 분명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의 덩든한 정겨움이 있으며 소박하며 소탈한 인심은 각박한 도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 삶에 필요한 곳을 찾아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대차이로 발생하는 사고나 생활방식의 차이점 등이 처음엔 업무 수행에 있어 쉽게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먼 길 돌아온 젊은 날의 방향의 마치며 내가 선택한 이 일에 직업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곳에 고요함이 깃들듯이 고뇌와 슬픔이 휘몰아간 지난날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며 이제 내 고향 이곳에서 내 젊음을 사르고 싶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와 노력을 통해 보람을 찾다.

취업자	이○○(20대, 여, 대졸)
취업기업	함평군청
업무내용	함평 향토산업 비빔밥 사업단 사무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살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는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집과 학교가 멀어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업에 집중하게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으며 대학교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대학교에서 알게 된 언니가 저에게 기숙사 학생생활관 조교를 지원해 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생활조교를 한다면 기숙사비가 전액 면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경험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만약 내가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내가 이번 기회를 잘 잡아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감격스럽게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기회를 선불리 넘기지 않고 잘 잡아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가 두려워하던 낯가림도 많이 호전이 되었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진학했습니다.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찾아보다가 함평군청 구인구직란에 여성취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업설계사님을 알게 되었으며, 취업설계사님께 연락을 해보았으며, 저에게도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지 일주일후 취업설계사님께서 함평군청에 채용공고가 떴다며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고 왠지 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 예절 및 예상 질문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2차 면접을 보았습니다. 합격했다는 결과를 취업설계사님을 통해 먼저 알게 되었고 정말 본인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첫 출근 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직원 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직장에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우리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새롭게 육성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과 우수한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체계로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국내출장을 통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적인 업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 대외로 나가 발로 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복지나 근로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나의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전남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안주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의 역량강화에 노력을 하여 배움에 힘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나은 조건에 도전하여 나의 미래를 밝게 설계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근무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자! 지역 중소기업에도 보람은 있다!

취업자	박광표(36세, 남, 고졸)
취업기업	해원산업(주)
업무내용	선박 외판 성형 생산 관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가 사회생활에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취업난을 보면 어중간한 스펙으로는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건 분명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직하는 게 보통 청년들의 최대의 바램이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자리 부족? 정부의 부족한 정책? 물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만 비판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 경쟁률을 뚫기 힘들다면 지역의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 보길 바랍니다. 현재 제 주변의 작은 회사들은 한국인들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꿈을 좇아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럼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고 하고 싶은 직업인지 쉽게 답하지 못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조선소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은 3D업종 중 하나죠. 저 또한 이 일을 할 거라고 20대 때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로 인해 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시급 3400원에 현장직부터 시작 했습니다. 하루 열두 시간씩 먼지를 마셔가며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했지만 그 시절이 지금의 제 밑거름이 된거죠.

이 곳은 이직이 다른 업종보다 빈번합니다. 저 또한 몇 군데 이직의 경험이 있고 현재 해원산업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현장직부터 시작을 했고 이 후 납품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사무실 직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무척이나 부듯했고 대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작은 회사에서도 꼭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아니지만 일을 배워나가면서 나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보다 임금도 작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어쩔 때는 본인일이 아닌데도 해야 되는 조금은 부당한 일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배워나가고 바뀌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제가 이 회사에 취업한지 3년째에 접어들니다. 잦은 이직으로 후회도 많이 해봤던 저이기에 지금의 이 회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요즘 나이가 많아도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 먼 산만보고 부모님께 의지해서 지내실 건가요?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정말 극소수 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자	이호철(남, 33세)
취업기관	(주)송림
업무내용	소각로 운영관리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진학하지 못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보다 장기간 동안 근무가 보장되는 곳에 취업을 하고자하였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유년시절을 보냈던 고향군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고 싶어 이곳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사 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주·야 교대근무가 우려되었으나 가족적인 회사동료들의 배려로 문제 없이 근무 중입니다. 꼭 대기업에 입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자신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맞는 근무환경이 주어진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하다가 쉽게 그만 두는 경향이 많은데,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경력과 기술을 쌓다가 보면 더 좋은 기업을 찾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현재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즐겁게 회사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도 정책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나 전남지역 기업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여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 End가 아닌 And로...

취업자	이진영 (35세, 여, 성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취업기관	땅끝애도영농조합법인 (육류가공제조업)
업무내용	사무업무 전반

약 8년여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서 1년 정도 집에서 보냈다. 하루하루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을 무렵 뉴스에서 경·단·녀 일명 경력단절여성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아, 저게 나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을 즈음 마침 지인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아 이곳에 몸 담아 일하고 있다.

신생기업이다 보니 경리업무를 포함한 익숙하지 않은 사무전반의 일이 내게 주어졌다. 입사 초기엔 낯설고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나를 채워줬다.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구성, 홍보물 제작 등 비중 있는 업무에서부터 소소한 업무까지의 업무 전반에 직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사장의 지론이었다.

그로인해 의사결정에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소속감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점점 커가고 있는 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이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서인지 생산라인에 팀장님 등 윗분들과도 밥도 같이 해서 먹고 두루두루 친분이 쌓여 가족같이 편한 분위기를 느낀다.

1년여 동안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가 다시 취업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막상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망설여졌다. 두려움을 밀어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 또한 나의 경험이 될 것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배우며 채워갈 수 있는 기회이자,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내 꿈과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88만원 세대, N포 세대 등은 현재 우리 청년들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6·25전쟁 이후 부모세대보다 더 못살게 된 최초의 세대가 될 것 이라는 말도 있다. 어느 세대이건 자기 세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자기 세대의 골고다 언덕에 오른다고 생각한다.

평생이 하루라면 청년들의 인생 시계는 이제 겨우 오전 10시에 왔을 뿐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노력하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취업을 준비있거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